

| Bi-Weekly |

신영 ESG

“적응(Mitigation)의 시대...1.5°C 경로가 사라진 시대의 새로운 투자 기준선”

Contents

ESG essay

신영's View

ESG 탐방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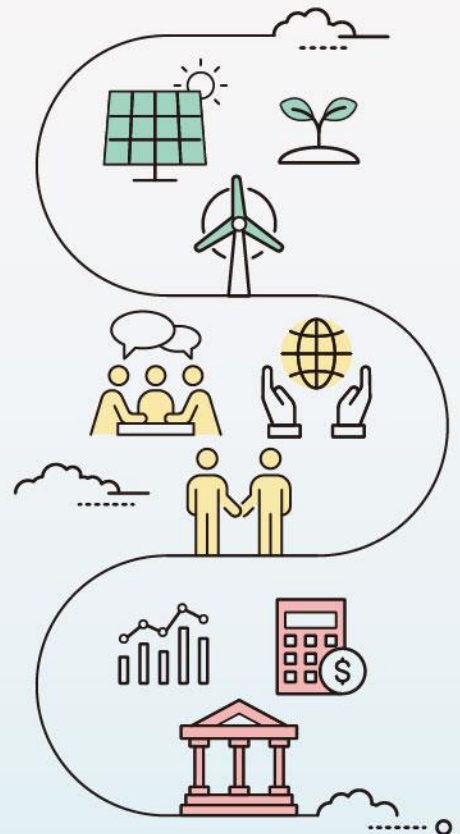
LG 씨엔에스

ESG ETF 따라잡기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structure Index Fund (GRID)

ESG News Clipping



적응(Mitigation)의 시대...1.5°C 경로가 사라진 시대의 새로운 투자 기준선

최근 기후 전망 보고서를 발표한 카본브리프, UNEP 모두 기후 변화 시나리오의 상단은 내려오고 동시에 하단은 올라가는 것으로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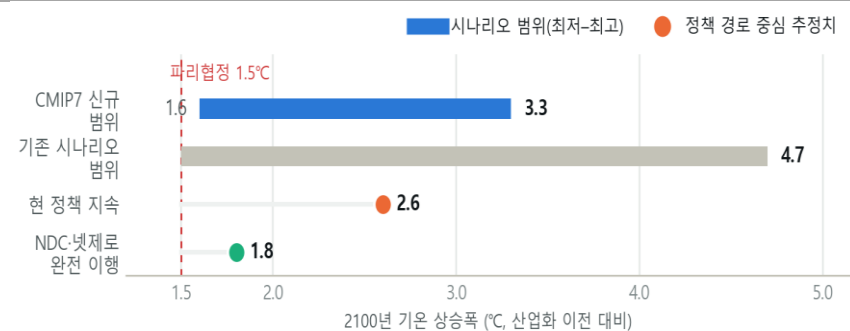
UNEP, NDC와 넷제로 목표가 모두 이행되더라도 금세기 기온 상승폭이 1.8°C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완화에서 적응으로 투자자들의 관심 확대 중

최근 카본브리프(Carbon Brief), UNEP는 연이어 기후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두 곳 모두 지난 1년 사이 기후 시나리오가 두 방향에서 동시에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고배출 경로는 완화되었고, 동시에 최선의 저배출 경로는 사라짐. 먼저 지난 1일 기후전문매체 카본브리프는 세계기후연구계획(WCRP)이 추진하는 제7차 '결합모델상호비교프로젝트(CMIP7)'의 새로운 배출 시나리오를 분석해 공개함. CMIP7은 앞으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7차 평가 보고서(AR7)에 활용될 핵심 과학자료 가운데 하나임. 이에 따르면 2100년 예상 온난화 범위가 기존 1.5~4.7°C에서 1.6~3.3°C로 조정됨. 상단이 1.4°C 낮아진 것은 태양광·풍력 발전비용의 급격한 하락과 배터리 기술 발전, 그리고 연 2조 달러를 넘어서는 청정에너지 투자가 극단적 고배출 경로의 가능성을 많이 낮추었기 때문임. 그러나 같은 조정에서 하한은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상징적인 수치였던 1.5°C를 넘어서며 충격을 가져옴. 이에 국제 기후정책의 질문이 '1.5°C를 지킬 것인가'에서 '얼마나 초과할 것인가'로 이동했다고 평가됨.

한편 UNEP는 2일 발표한 기후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각국의 NDC와 넷제로 목표가 모두 이행되더라도 금세기 기온 상승폭이 1.8°C에 도달하며, 현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약 2.6°C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또한 탄소 배출이 5년 더 지속될 때마다 정점 기온은 약 0.1°C씩 상승할 것으로 경고함. UNEP는 앞으로 기후위험을 평가할 때 최고 기온뿐 아니라 1.5°C를 얼마나 초과하는지, 초과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함. 이는 초과 폭이 커지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폭염과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 우려와 생태계 손실 위험이 커지고, 심지어 기후시스템이 되돌리기 어려운 임계점을 넘어서실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임.

도표 1. 상단은 낮아지고 vs 하단은 올라감...1.5°C 경로의 소멸



자료: UNEP, Carbon Brief,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보고서는 기온이 잠시 1.5°C를 넘더라도 최고 온난화 수준을 최대한 낮추고, 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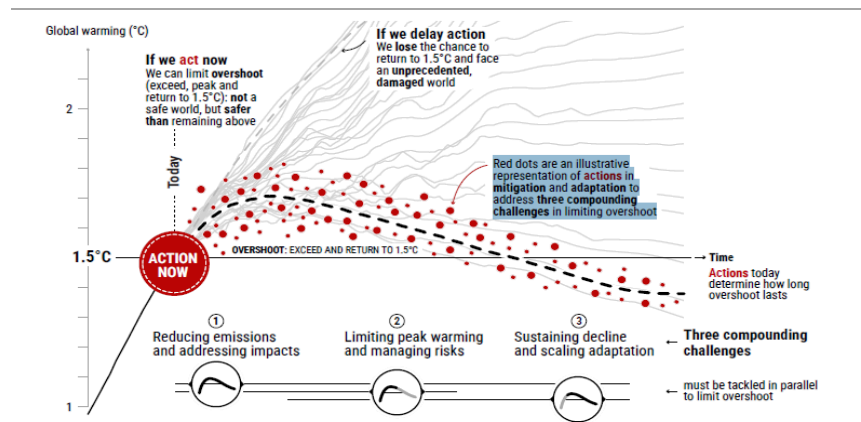
적으로 배출량보다 제거량이 많은 순흡수(마이너스 순배출) 단계를 거쳐, 기온을 다시 낮추는 경로를 제시함. 이에 따라 UNEP는 탄소중립을 최종 목표가 아닌 마이너스 순배출로 가는 중간 단계로 재정의 함. 초과가 전제된 가운데 기온을 되돌리려면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미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임.

UNEP,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이산화탄
소 제거 기술의 필요성 강조
→ 2030년까지의 감축 속도
와 장기 탄소 제거 역량이
함께 중요해질 것

UNEP는 기온을 다시 낮추기 위한 핵심 보완 수단으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탄소 제거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함. 다만 보고서는 탄소 제거를 탄소배출 감축의 대체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단기 감축이 늦어질수록 정점 기온은 더 높아지고 이후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탄소제거 규모도 커지기 때문임. 이에 일부 언론은 향후 기후대응에서는 2030년까지의 감축 속도와 장기 탄소 제거 역량이 함께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함.

UNEP는 수십 년간의 불충분한 조치로 인해 인류가 기온 상승을 제한하는 데 있어 ①배출량 감축 및 영향 해결 ②온난화 정점 제한 및 위험 관리 ③기후 변화 지속 및 적응 확대 등의 세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다음 도표 2는 기온의 일시적 초과 현상과 그 규모, 지속 기간 및 결과를 억제하기 위한 대응 조치와 과제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빨간색 점은 일시적 초과 억제와 관련된 복합적인 세 가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완화 및 적응 조치를 예시적으로 나타낸 것임.

도표 2. 기온 일시적 초과: 대응 조치와 과제



자료: UNEP,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기후 변화의 대응을 위한 핵심
행동 중 완화, 적응 → 최근
완화에서 적응 분야로 투자자들
의 관심이 확대

기후 변화의 대응을 위한 핵심 행동에는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 등이 있는데 최근 완화에서 적응 분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완화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을 예로 들 수 있음. 다시 말해 완화는 기후 변화의 원인을 제거해 기후 변화 속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둔 활동임. 그 동안 인류는 완

화 활동을 강조하며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활동과 투자 등이 이루어졌음. 그 결과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극단적 고배출 경로의 가능성을 많이 낮추었음. 하지만 투자자 관점에서는 연 2조 달러의 청정에너지 투자 규모는 이미 완화 테마의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적응 관련 활동은 최근 극심한 기후 현상 등으로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아짐 → 2026년 유럽의 폭염은 기후 적응이 종목 간 성과를 가르는 중요한 재무 변수로 등장

한편 이미 벌어진 기후 변화 결과에 대응해 피해를 줄이는 적응 관련 활동은 최근 여야 극심한 기후 현상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관심을 높아져 가고 있음. 2026년 유럽의 폭염은 기후 적응이 종목 간 성과를 가르는 중요한 재무 변수로 등장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됨. 라인강 수위 저하로 바지선 운임이 톤당 35 유로에서 276.67 유로까지 약 8배 급등하며 내륙의 수운 의존 제조업과 수력발전 등이 직격탄을 맞은 반면, 산업용 냉각시스템과 냉방 관련 기업 등은 재평가를 받았음. 핵심은 사전적으로 이루어진 적응 투자가 곧 실적 방어력으로 연결되어 재무적 성과로 나타났다는 점임.

적응 수요의 상당 부분은 미래 정책이 아니라 과거 배출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음

2015년 파리협정 이후 누적 배출된 온실가스가 이미 4,000억 톤을 넘어 섰고, 이 누적분은 향후 20~30년의 물리적 만성적 피해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임이 확실한 상황임. 다시 말해 적응 수요의 상당 부분은 미래 정책이 아니라 과거 배출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점임. UNEP의 분석대로 배출이 5년 더 지속될 때마다 정점 기온이 0.1℃ 상승한다는 것은 투자자 관점에서는 정책 지연이 모호한 테일리스크가 아니라 적응 관련 자본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계산 가능한 변수임을 뜻함. 게다가 일부 언론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극한 기후 적응 관련 지출이 전세계적으로 20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전망을 더욱 밝히고 있음.

블랙록은 기후회복력을 미래 자본시장의 핵심 장기 투자 테마로 제시하며 기후 변화 적응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조함

한편 블랙록(BlackRock)은 폭염과 기온 상승, 물 부족 등 오랜 기간에 걸쳐 자산 가치를 훼손하는 '만성적 기후위험'이 금융시장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경고하며, 특히 대체 투자 분야에서 기후위험에 대비하고 적응하며 견디고, 사후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역량을 뜻하는 기후회복력(climate resilience)을 미래 자본시장의 핵심 장기 투자 테마로 제시함. 이미 폭염이 일상화 되며 고효율 냉방 설비와 데이터센터의 냉각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극한 기후에 견디도록 노후 건축물 보강하는 개선 사업이나 홍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의 복합 방재 인프라 시장을 비롯해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폐수 재활용, 스마트 관개, 첨단 상하수도 인프라 등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함.

투자자 관점에서 향후 기후 변화 적응과 만성 리스크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임

지난 10년은 '배출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였다면, 향후 10년의 수익률은 '이미 확정된 기후 변화에 누가 준비되어 있는가'가 결정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기후 변화 완화뿐만 아니라 적응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만성 리스크에도 투자자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ESG 이벤트 & 신영's View

수소 승용차 대중화 막히자...도요타, 트럭·물류가 새 시장

- 수소 승용차 보급이 인프라 부족과 고비용으로 목표 대비 4% 수준에 그치자, 도요타와 일본 정부가 정해진 노선을 반복 운행하는 부품 운송 트럭 및 물류 중심 상용차로 전략적 궤도 수정을 단행
- 승용차 대비 충전 거점 효율성과 일일 수소 소비량이 월등히 높은 상용차의 특성을 활용해 고정 수요를 창출하고, 일본 정부는 5대 중점지역에 경유 대비 연료비 차액 보조금을 지원해 경제성 확보를 유도

Comments

- 상용차는 특정 거점과 거점만을 이동하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 구축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것이 장점임
- 문제는 그린 수소가 가장 친환경적인 방식이지만 제조 원가가 가장 높다는 것
- 이에 전 세계 청정 수소 생산 설비 용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 그 외 시장에서는 보급 속도가 더딘 상황임

- Analyst 문용권

버리던 부산물에서 50억 벌었다...포스코퓨처엠의 '돈 되는' 자원순환

- 포스코퓨처엠이 폐기물 재활용률 99.4%를 달성하고, 흑연계 부산물의 순환자원 인정 취득 및 판매처 다변화를 통해 약 5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함
- 폐배터리 회수 원료를 배터리 소재 제조에 재투입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해 신규 원료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함
- 31개 공정 효율화 과제를 통해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대비 4.3% 감축했으며, REC-PPA 도입 확대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함

Comments

- 포스코퓨처엠의 포스코 제철 공정의 콜타르를 활용해 인조흑연 음극재를 생산하는 자원 순환 공정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비중국 기업 중 유일한 이차전지용 음극재 생산 업체임
- 또한 추후 제철 공정 부산물인 산화철을 LFP 양극재 제조에 활용할 전망
- 그룹사 자체 공정을 활용한 양, 음극재 제조 역량이 폐기물 처리, 탄소 저감에 이어 원가 경쟁력을 제고로도 이어질 수 있음

- Analyst 박진수

한국거래소에 자발적 탄소시장 연다...정부, 내년 크레딧 20만톤 직접 구매

- 국회토론회에서 기획예산처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을 발표하고, 정부가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한국거래소에 VCM 개설...해외 크레딧도 상장 추진
- 정부의 초기 수요 마중물 역할 → 연간 약 90만톤을 배출하는 중앙정부가 내년 최대 20만톤의 고품질 탄소크레딧을 구매할 계획
- 기획예산처가 맡은 이유는... 미래 관련 업무가 기획예산처 업무로 탄소·기후 대응 역시 미래 업무와 연관되기 때문이라고 밝힘

Comments

-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예정 → 탄소크레딧의 발행, 평가, 유통, 소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 → 법적 지위 불분명한 탄소크레딧에 통합 관리체계 도입
- 해외 등록기관에서 발행된 탄소크레딧의 국내 상장도 추진 → 주요 해외 평가기관과 협력해 거래되는 크레딧의 국제적 신뢰도 확보 추구 예정
- K-VCM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품질평가 결과를 상장 기준에 반영하고 저품질 크레딧을 차단해야 + 배출권 거래제와 경계 설정하고 국제기준 정합성 갖춰야 할 것

- Analyst 오광영

LG씨엔에스(064400.KS)

매수(TP 90,000원)

기술 혁신을 통한 ESG 실천

현재주가(9/11)

71,900원

ESG 등급 현황	ESG 등급 변화 (KCGS)	Key Data (기준일: 2026. 9. 11)
(평가기관) ESG E S G		
KCGS - - - -		시가총액(억원) 69,661
Bloomberg 70.9 57.1 92.7 25.8		배당수익률(26F, %) 2.8
주: KCGS : S~D 7등급		외국인지분율(%) 5.4
Bloomberg: 100 만점 기준		주요주주 지분율(%)
		LG 외 4 인 47.1 %
		국민연금공단 6.1%
		Company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3 -22.9 13.9 1.4
		KOSPI대비 상대수익률 -7.2 -13.9 -13.3 -110.8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구 분	구 분	구 분
2024	2024	내 용
2025	2025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안전사고 재해율 (%)	주주총회
804	0.08	2주 전 소집 통지
754	0.00	
폐기물 발생량 (톤)	기간제 근로자 비율 (%)	전자투표제
4,702	2.1%	도입 및 시행
3,405	1.9%	
환경관련 투자비 (억원)	여성 근로자 비율 (%)	집중투표제
74	25.8%	배제조항 삭제
-	26.3%	
환경 경영 인증	사회공헌 지출액 (백만원)	배 당
ISO 14001 인증	25	결산배당(1회)
	43	
환경 경영 조직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이사회
ESG 위원회	실시 중	운영 실적
		7회

ESG 관련 최신 활동

중기중앙회-LG CNS, AI 상생 프로젝트 가동...중소 제조업 AX 전환 속도	LG CNS, 학생 맞춤형 AI 교육 'AI 지니어스' 26개 학교로 확대	현신균 LG CNS 대표, 지배구조 정비 '고 빠'...주주권·이사회 독립성 강화
(전자신문, 26.06.17)	(경향신문, 26.06.24)	(SR타임스, 26.08.27)
- 정부의 중소기업 AX 확산 정책 기조에 맞춰 대 중소기업간 AI 활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LG CNS가 MOU를 체결함 - 향후 2년간 교육, 기술, 유통, 마케팅 등을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42억원 규모의 지원을 할 예정임 - 교육 분야에선 중소기업 CEO 대상 AI/AX교육과 컨설팅을, 기술 지원 분야에선 제조 현장의 혁신을 추진하고, 유통/마케팅 분야에서는 LG CNS의 시가반 마케팅 솔루션을 활용해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할 예정,	- 학생 맞춤형 AI 교육 프로그램인 AI지니어스를 서울 17개교와 지방 9개교 등 총 26개교로 규모를 키움 - 고등학생 심화 교육인 AI지니어스 아카데미도 전년 대비 200명 이상 키움 600명 규모로 진행함 - 올해 처음으로 데이터 분석 과정을 신설하여 기존 생성형 AI 과정과 피지컬 컴퓨팅 등 총 5개 과목을 운영할 예정	-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을 승인하고 올해부터 제도를 운영해옴 - 올해 3월 24일 이호영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여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함 -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미준수 상태인 2개 항목에 대해서 개선을 준비하고 있음

ESG history

연 령	내 용
2022년	[E] 부산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그린데이터센터 최고등급 인증 유지
2023년	[E]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감 확대 [S] 사회공헌 AI지니어스 운영
2024년	[E]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G] ESG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S] 데이터센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획득
2025년	[ESG] ASOCIO 어워드 2025 ESG 어워드 수상 [G] 전자투표제 도입 [G] 24년 연속 결산배당 및 2025년 중간배당 실시 [E] 마곡본사 LEED 실버 등급 인증 [E] CDP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참여 계획
2026년	[G] 사외이사 단독 이사회 의장 선임

ESG 전략 - AX 전문기업으로서 데이터센터 전력 효율화를 핵심으로 하는 기후대응 체계 구축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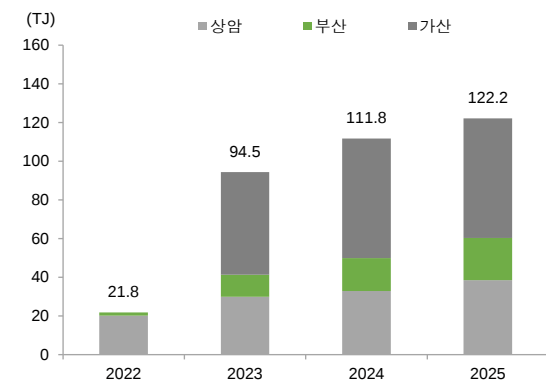
LG CNS는 클라우드·AI, 스마트 엔지니어링, 시스템 통합과 운영을 아우르는 IT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함. 데이터 센터와 IT 인프라 운영이 사업 구조의 핵심을 이루며, 탄소의 직접배출보다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 비중이 높은 산업적 특성을 가짐. AI 고도화와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온실가스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전기요금 상승과 더불어 기업 ESG 측면의 핵심 리스크로 지목됨. 이에 대응해 액체냉각과 고효율 설비 적용, 재생에너지 조달 확대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효율화를 추진하며, 2050년을 목표로 한 장기 감축 경로를 수립하고 있음.

ESG Keyword -에너지 효율·정보보호에서 실행력 우수

LG CNS가 보유한 데이터센터 에너지 총 절감량은 2022년 21.8TJ에서 2025년 122.2TJ로 꾸준히 확대됐고, 2025년 평균 PUE는 1.55로 2025년 목표치를 달성하며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오고 있음. 향후 재생에너지 확보 경쟁 심화를 대비하여 전력 구매 계약 등 장기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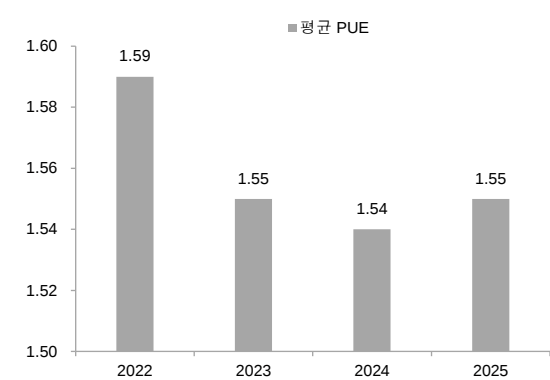
또한 정보보안활동을 위해 CISO(정보보안최고책임자), CPO(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선임하고, 각 부서 내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함.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은 약 274억원으로 2023년 대비 약 34% 늘어났고 전담인력도 225명으로 확대되어, 꾸준히 관련 투자와 인력을 확대하고 있음

LG씨엔에스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감량



자료: LG 씨엔에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LG씨엔에스 데이터센터 평균 PUE



자료: LG 씨엔에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structure Index Fund (GRID)

Key Facts

상장일	2009/11/16
기초지수	the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structure™Index
구성종목수	119
순자산총액 (십억달러)	11,81
시장가격(USD)	177.24
NAV(USD)	177.02
총보수(%)	0.56
운용사	First Trust Advisors

Top Holdings

(기준일: 2026.09.09)

Schneider Electric SE	9.12%
Eaton Corporation Plc	8.84%
Johnson Controls International Plc	8.43%
ABB Ltd	7.70%
Quanta Services, Inc.	7.51%
E.ON SE	4.11%
National Grid Plc	4.07%
Prismian SpA	3.65%
nVent Electric plc	2.86%
Hubbell Incorporated	2.42%

NAV와 운용자산

(USD)

운용자산(우)

NAV(좌)

(\$m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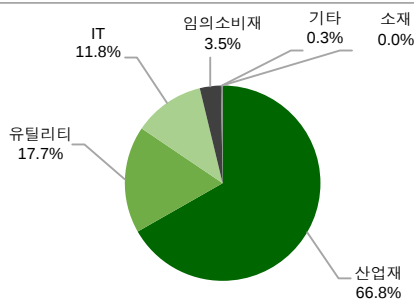
ETF 개요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structure Index Fund ETF(GRID)는 2009년 11월 상장된 ETF로, 벤치마크 지수인 the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structure™ Index를 추종하는 ETF임. 이 지수는 주로 전기 그리드, 전력 계량 기기, 네트워크, 에너지 저장 및 관리,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등의 인프라 부문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로 구성됨. 또한 이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치 부여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는데, 매출의 50% 이상이 스마트 그리드 및 전력 에너지 인프라 부문에서 발생하는 순수 사업 기업(Pure Play)와 50% 미만인 해당 부문에서 발생하는 다각화된 사업 기업(Diversified)으로 나누어 Pure Play 기업들은 80%의 가중치가 부여되고 Diversified기업들은 20%의 가중치가 부여됨. 특히 기업이 이 지수에 포함되려면 Clean Edge에서 정의한 스마트 그리드, 전력 인프라, 기타 그리드 관련 활동 회사로 분류되어야 하며, 시가총액이 최소 1억 달러, 유동주식 비율이 최소 20%, 그리고 3개월 평균 일일 거래량이 최소 5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 또한 분기별로 리밸런싱 되고 반년마다 재구성됨.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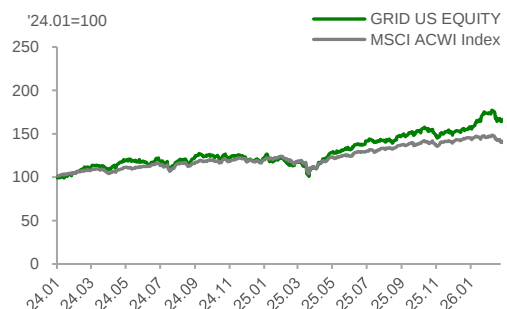
GRID는 스마트 그리드 및 전력 에너지 인프라 부문에 속하는 글로벌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보유 비중 상위 10종목의 합산 비중이 60%에 육박할 정도로 보유 종목수 대비 집중된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ETF임. AI발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관심 증가 속에 올해 상반기 자금이 순유입된 상위 ETF 중 하나로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 및 전력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기업 중 우수한 ESG 관행을 가진 기업에 대한 투자 고려시 투자 대안으로 검토 추천함.

GRID의 업종 구성 비중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9.1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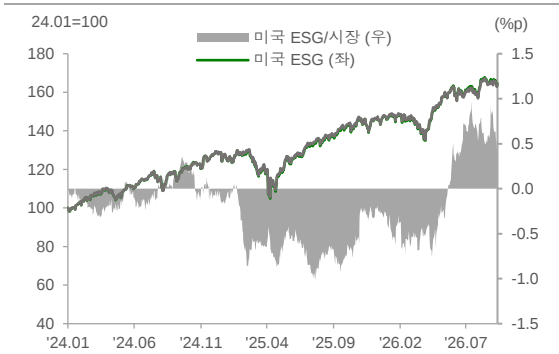
시장과 성과 비교 (MSCI World와 비교)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9.13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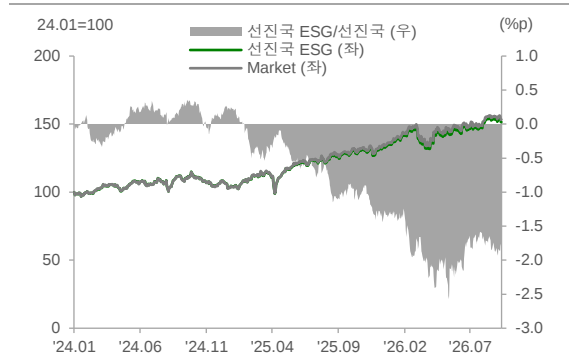
ESG 관련 DATA – 주요 지수 및 ETF의 성과 흐름

미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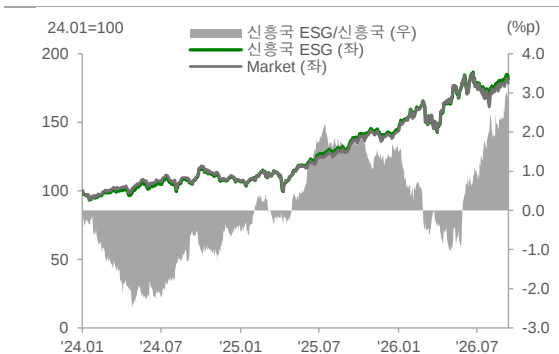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9.13 기준)

선진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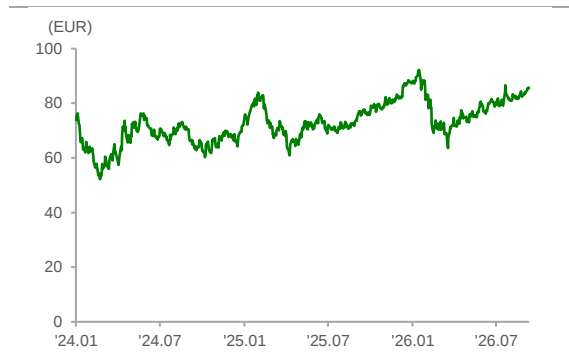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9.13 기준)

신용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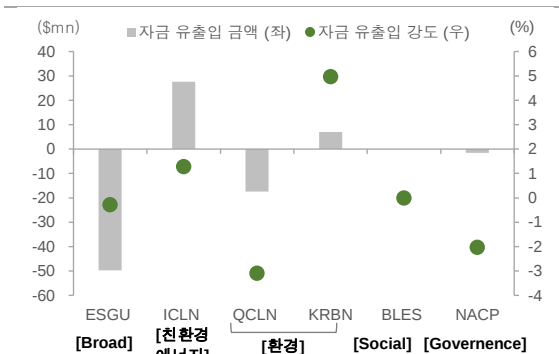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9.13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 흐름 (EU 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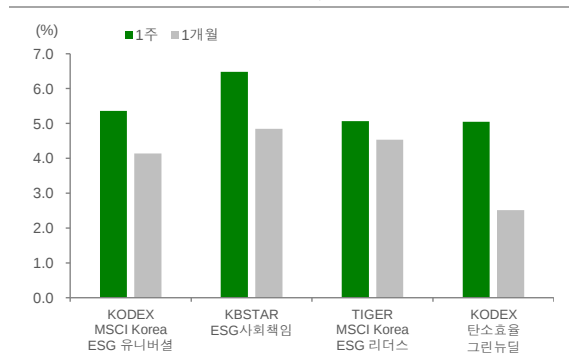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9.13 기준)

미국 상장 ESG ETF 유형별 1개월 자금 유출입 현황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9.13 기준)

국내 상장 ESG ETF들 성과 (1주, 1개월)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9.13 기준)

ESG 관련 DATA - 미국 상장 ESG ETF 현황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AUM (백만달러)	ETF 개수	AUM 비중	ETF 비중
1	Broad	97,722	60	76.3%	61.9%
2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16,866	13	13.2%	13.4%
3	탄소효율 (Environment)	6,948	13	5.4%	13.4%
4	Social	6,108	5	4.8%	5.2%
5	Governance	465	3	0.4%	3.1%
6	기타	0	3	0.0%	3.1%
ESG 전체		128,109	97	100%	1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9.13 기준)

주1: 미국 상장 ETF들을 전체 유니버스로, ETF 상품 개요 (description)를 기반으로 ESG 관련 키워드 검색 (ESG, Social, Climate, Carbon, Fossil, Environment, Clean, Solar, Green, Renewable, Sustain)을 통해 총 124개를 ESG 전략 기반의 ETF로 판단하였음

주2: 향후 키워드는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정성적 판단 또한 ETF 분류에 반영하였음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개요

구분	ETF	ETF	상장일	개요
Broa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2016-12-02	MSCI USA ESG FOCUS 지수를 추적하는 미국 최대의 ESG ETF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2018-09-20	FTSE USA All Cap Choice 지수를 추적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2019-05-09	MSCI USA ESG LEADERS 지수를 추적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Large-Cap Value 지수를 추적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Small-Cap 지수 추적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2016-06-30	신흥국 투자 ESG ETF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2016-06-30	북미 제외 선진국 ESG ETF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2018-10-23	채권 ESG ETF 중 가장 큰 규모의 ETF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2008-06-25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
	TAN	Invesco Solar ETF	2008-04-15	태양광 관련 기업들로 구성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2007-02-14	미국 상장 기업 중 클린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Environment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2015-12-01	S&P500 기업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비축하지 않는 기업들에 투자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2014-12-09	선진국, 신흥국의 라지캡, 미들캡 중, 매출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들이 투자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2020-07-30	탄소배출권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
Social	BLES	Inspire Global Hope ETF	2017-02-27	대형주 (시가총액 50억 달러) 중 성서적인 (Biblical) 측면에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부분을 측정하여 투자
Governance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2016-03-08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임원과 이사회 구성하는 여성 비율을 고려, 상위 기업에 투자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2018-07-18	소수 인종의 권익을 중시하는 기업들에 투자. 비영리의 ETF로 운용수익은 NAACP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에 기부됨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SG 관련 DATA - 주요 ESG ETF의 성과와 자금 유출입

해외 -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ETF	운용규모 (\$mn)	수익률 (%)				자금 유출입 (\$mn)		자금 유출입 강도 (%)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Broad	ESGU	18,032	-0.9	-1.9	3.1	16.3	-50	546	-0.3	3.0
	ESGV	13,416	-1.0	-1.8	3.3	18.1	-11	120	-0.1	0.9
	SUSL	1,212	-1.7	-2.5	3.0	16.3	14	60	1.1	4.9
	NULV	2,532	-0.6	-0.6	5.7	17.5	256	253	10.1	10.0
	NUSC	1,267	-2.2	-5.6	-1.8	12.7	-1	-140	0.0	-11.1
	ESGE	7,014	-0.6	2.1	0.4	20.4	-5	49	-0.1	0.7
	ESGD	12,145	-1.4	-1.9	1.8	11.1	86	77	0.7	0.6
	EAGG	5,010	-1.0	-1.8	-2.8	-3.3	84	815	1.7	16.3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2,150	0.9	-2.2	-14.1	-2.3	28	166	1.3	7.7
	TAN	996	-1.9	-10.2	-25.1	-14.8	-241	118	-24.2	11.8
Environment	QCLN	564	0.1	-6.7	-19.5	6.5	-17	-15	-3.1	-2.6
	SPYX	2,833	-0.9	-1.9	3.1	15.6	0	51	0.0	1.8
	CRBN	1,173	-1.0	-1.3	2.1	14.5	0	61	0.0	5.2
	KRBN	141	-0.1	1.2	6.9	22.2	7	-35	5.0	-24.7
Social	BLES	164	-1.5	-1.8	1.8	11.1	0	14	0.0	8.6
Governance	SHE	332	-0.8	-2.3	2.1	21.9	0	-7	0.0	-2.1
	NACP	75	-0.3	-1.0	1.8	22.8	-2	0	-2.0	-0.1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9.13 기준)

국내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ETF	운용 규모 (억원)	수익률 (%)				자금 유출입 (억원)		자금 유출입 강도(%)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셜	207	5.4	4.1	-10.7	44.0	0.0	-29.8	0.0	-14.4
FOCUS ESG 리더스	77	1.8	0.9	-9.2	16.2	0.0	-53.2	0.0	-69.2
KODEX 200ESG	1,670	5.4	3.7	-12.2	47.6	-48.5	491.5	-2.9	29.4
KBRIS ESG 사회책임	6,901	6.5	4.8	-13.5	50.7	-1.4	4,194.5	0.0	60.8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셜	248	5.1	4.1	-11.6	48.2	0.0	12.2	0.0	4.9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179	5.1	4.5	-8.2	48.8	0.0	-50.7	0.0	-28.3
KODEX 탄소효율그린뉴딜	456	5.0	2.5	-13.4	29.7	0.0	-169.9	0.0	-37.3
TIGER 탄소효율그린뉴딜	226	5.0	2.5	-13.2	30.0	0.0	-18.5	0.0	-8.2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225	5.1	2.6	-13.2	30.5	0.0	0.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9.13 기준)

주: KRX 탄소효율그린뉴딜 지수 추종의 ETF들은모두 2021년 2월 4일 상장으로 2021년 YTD 자금 유출입은 상장 이후 흐름임

ESG News Clipping

기업 ESG 뉴스

E (환경)

(2026.08.21) 한화큐셀, MS와 'AI 전력 인프라' 맞손...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뚫는다-Impact-on

- 세액공제 축소와 中 견제...美 태양광 정책 급변 속 엇갈린 시장
- 모듈 공급 넘어 발전·VPP까지...빅테크 전력망 공략

S (사회)

(2026.08.26) 2만6000개 공급망 가진 월마트, 어떻게 19개 협력사 퇴출시켰나-Impact-on

- 무단 생산 적발 71% 급감... 위험 기반 감사 주효
- 위험 협력사 19곳과 거래 끊어
- 글로벌 핫라인 가동... 1만6700건 제3자 현장 실사

(2026.08.27) 산업은행도 자금 댄 사우디 재생에너지...이주노동자 노동착취 논란-Impact-on

- 채용 수수료 떠안은 이주노동자...임금체불 폭염 노동까지
- 산업은행도 금융지원...사우디 친환경 사업 인권리스크 금융권으로 확대

(2026.08.28) 남동발전-두산에너지빌리티 네팔 수력발전, 8년 전부터 기후재해 위험 경고...홍수 피해 반복돼-Impact-on

- 네팔 수력발전사업, 2018년 환경평가서 이미 홍수 산사태 위험 지적
- 2025년 빙하호 홍수로 일부 시설 파손...ADB도 위험 재확인

(2026.08.31) 교보생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금융소비자 보호 강화-ESG경제

- 소비자보호 조직 세분화·금융취약계층 보호체계 확대
- '11년 생보업계 첫 보고서 발간...이해관계자 중심 경영 지속

(2026.09.01) 현대글로벌비스 슬로바키아 노조, 파업투표 94% 찬성...기아 생산라인 중단 우려-Impact-on

- 임금 인상 요구 200유로→140유로 낮췄지만...중재에도 합의 실패
- 파업 찬반투표 참여자 94% 찬성...노조, 무기한 작업중단 예고
- 글로벌비스 슬로바키아, 파업 시 기아 유럽 생산거점 물류 차질 우려

(2026.09.03) 메타, 7년간 이어진 주주 경고 외면...결국 24조원 비용 부담-Impact-on

- 수년간 이어진 아동 안전 경고...차등의결권에 막혀 부결
- 조기 경보 외면한 대가...美 SEC는 '주주제안 축소' 역주행

G (지배구조)

(2026.08.24) 미쓰비시전기, 美전력 소프트웨어社 'PCI' 인수...에너지 SaaS 영토 확장-Impact-on

- 美 발전량 60% 관리하는 PCI...발전·송전·거래까지 한 플랫폼에서
- 분산원전 늘자 전력망 복잡성↑... '개별 설비'서 '통합 에너지 최적화'로 확장

(2026.08.25) 베인캐피탈, 7조원에 산 히타치금속 다시 쪼갬다...일본 M&A 불 이끄는 사업재편-Impact-on

- 전선 사업 먼저 떼어냈다...처음부터 '재상장' 명시
- 정부 주도 기업 효율화 바람... 재상장 향한 '선택과 집중'

(2026.09.02) 오픈AI-엔트로픽 등 주요 AI기업 검증 본격화...EU AI법 첫 집행-Impact-on

- 집행권 발효 직후 첫 검증...최첨단 AI 안전·보안부터 본다
- 학습데이터 안 밝힌 30개사 이상에 저작권 자료 요구

정책 ESG 뉴스

E (환경)

(2026.08.24) EU 탄소노미 OpEx 공시 폐지 요구...유럽 기업들 "비용 대비 활용도 낮아"-Impact-on

- 공시 대상 줄었지만 산정방식은 그대로...기업들 "OpEx 실효성 낮아"
- CSRD 이어 탄소노미도 간소화...10월 ESMA 최종 의견

(2026.08.26) 기업 2000곳이 산업용수 40% 쓴다...수도요금도 할증 도입 시대?-Impact-on

- 역대 최악의 7월 가뭄...수도 기업의 '할증 요금' 추진설에 비판 고조
- "과다 사용자 부담 늘려야"...누진제 도입과 수자원 경제학의 경고
- 2000개 대형 고객이 40% 이상 사용

(2026.08.27) 배터리로 피크수요 15% 대응...美 캘리포니아, VPP 법안 표결-Impact-on

- 가정용 배터리 자원화...피크 대응·망 투자비 절감 목표
- 2035년 피크 15% 감당...'DSGS 예산 삭감'·'주지사 거부권'이 변수

(2026.09.02) 美 연방법원, 뉴욕주 '기후 슈퍼펀드법' 제동...연방법 우선 판단-Impact-on

- "온실가스 규율은 연방 권한"...주 단위 징벌적 배상 체계 제동
- 2000~2024년 배출 기준 750억달러 부과...버몬트주 소송에도 영향

S (사회)

(2026.08.21) 협력사 정보 못 받으면 CSDDD 위반?...유럽 금융권, 면책조항 요구-Impact-on

- 중 공급망 보안규제 직접 거론..."현지법 때문에 정보 못 받을 수도"
- 협력사 정보 확보 못할 경우, 공개자료·제3자 보고서 활용 인정 필요해

(2026.08.28) 대기업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매년 의무화...'인권·환경 실사법' 발의-ESG경제

- 근로자 1000명 이상·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실사 의무
- 대기업 실사 이행체계 구축하고 매년 계획 수립해 이사회 승인
- 침해 방지·완화 대책 의무화...필요시 거래·사업관계 종료까지
- 환경침해 판단에 전과정평가·스코프3 포함...공급망 실사 강화

(2026.08.31) 유럽연합, 92억유로 규모 금융 지원...방산·우주·에너지 자립 정조준-Impact-on

- 43억유로 기업에 공급...방산·우주·에너지·농업 중소기업 지원
- 독일·그리스 전력망 지원...태양광 지역난방 지원으로 에너지 자립 추진

(2026.09.01) 한국거래소에 자발적 탄소시장 연다...정부, 내년 크레딧 20만톤 직접 구매-Impact-on

- 한국거래소에 VCM 개설...해외 크레딧도 상장 추진
- 정부가 초기 수요 마중물...기획예산처가 맡은 이유

(2026.09.03) EU 재활용업계, PPWR에 '유럽산 우대' 요구...역외산 검증 강화 촉구-Impact-on

- PPWR 재생원료 의무, 유럽산 우선 인정 요구
- 유럽산 우대에 역외산 검증 문턱도 높여달라
- 유럽 재활용업계, 역외 저가 수입에 수요 뺏길라

G (지배구조)

(2026.08.25) EU, 한국산 재생플라스틱도 동등성 검증...PPWR 인정기준 마련-Impact-on

- 한국산 재생원료도 EU 기준과 동등성 검증
- 재생함량 계산·재활용 기술 기준도 연말까지 마련
- 2030년 재생원료 의무화...포장재별 10~35%

일반 ESG 뉴스

ESG

(2026.08.24) “과장도 침묵도 답 아니다”...ESG 소통 새 해법 ‘그린사우팅’-Impact-on

- 그린워싱 피하다 입 닫는 기업들...“침묵도 리스크”
- “잘한 것만 말하지 마라”...파타고니아 코토팍시의 소통법

(2026.08.25) 방산기업 ESG 투자 기준 나왔다...유럽 투자자들 ‘일괄 배제’서 기업별 심사로-Impact-on

- ‘방산기업 일괄 배제’ 대신 기업별 심사...제품 사용처 인권 위험 본다
- 연기금 보험사, 운용사 방산 투자까지 점검...실사·관여 절차 확인

(2026.08.26) KSSB 공시, ‘위험관리’가 핵심인 이유-ESG경제

- 형식적 나열을 넘어 ERM과의 실질적 통합으로
- ESG 리스크를 재무·운영 리스크와 같은 언어로 관리해야
- 공시의 완성도는 문서가 아니라 경영체계에서 나온다

E (환경)

(2026.08.27) 기후공시 먼저 해본 호주...첫 보고서 259건서 드러난 ‘6가지 과제’-Impact-on

- 면책문구부터 교차참조까지...ASIC이 짚은 ‘6대 개선 과제’
- 첫 시행 뒤 제도 손질...제3자 검증 강화 일정 연기·스코프3 기준 검토

S (사회)

(2026.08.28) 중국 희토류 공급망 뒤 미얀마 불법광산...유엔, 신규 채굴지 302곳 확인-Impact-on

- 미얀마산 희토류 중국서 정제 후, 전기차·풍력 공급망으로
- 화학물질 폐수·노동착취 확산...채굴 수익은 무장세력으로
- 유엔, 기업에 공급망 재점검 요구...1차 협력사 넘어 채굴지까지

G (지배구조)

(2026.08.21) 美 주주행동도 ‘E·S’에서 ‘G’로...지배구조 제안 19% 증가-Impact-on

- 환경 -32%·사회 -33%...지배구조만 19% 증가
- SEC 중재 출자 기업이 직접 판단...주주제안 제외 리스크 커져

(2026.08.31) 美, 기업 DEI 관행에 하위청구법 적용...딜로이트, 300억원 합의-Impact-on

- 채용 승진 넘어 임원 보상까지...150명 DEI 목표 연계
- 차별금지 넘어 ‘연방계약 준수 인증’ 문제로...DEI에 하위청구법 적용

(2026.09.01) 美 SEC, 주주제안 연방규칙 폐지 검토...규제 권한 주정부 이양 추진-Impact-on

- 주주제안 규칙 자체 폐지 검토...연방정부서 주정부로
- 텍사스는 지분 최대 100만달러 요구...주마다 제출 문턱 달라진다

(2026.09.02) 자사주 매입의 마법, 애플과 텔레다인이 증명한 것-ESG경제

- 애플, 순익 2.7배 느는 동안 EPS는 4.7배·주가는 10.7배 올라
- 텔레다인의 싱글턴은 발행주식 85%를 사들여 EPS를 41배로
- 관건은 주가 부양이 아니라 ‘내재가치와 시장가격의 차이’

(2026.09.03) 네팔의 ‘기후청구서’, 실제 소송 가능할까...‘인과관계’가 승부처-Impact-on

- 피해액은 6.8조원인데 기금 총액은 3400억원... ‘배상 외교’ 병행
- 파리협정이 걸어 잠근 문, ICJ 권고적 의견이 빗장 풀었다
- 소송 시 넘어야 할 3대 암초... 관할권·의무위반·인과관계

Compliance Notice

투자등급

기업분석

매수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증가대비 목표주가 1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증가대비 $\pm 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매도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증가대비 목표주가 -10%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분석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높게 가져갈 것을 추천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추천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 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괴리율은 감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항목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고지]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기준일(20260630)	매수 : 90.45%	중립 : 9.55%	매도 : 0%

[당사와의 이해관계 고지]

종목명	LP(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1%이상보유	계열사 관계여부	채무이행보증	자사주신탁계약
	ELW	주식	주식선물	주식옵션				
LG씨엔에스	-	-	-	-	-	-	-	-

